

혁신도시 부영CC는 ‘나주판 대장동사건’... 용도변경 중단하라

대책위 “영산강환경정판단은 나주시에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한 것”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개발 방향 원칙·공공기여 규모 확정해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추진 움직임을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빗대며,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중단하라고 나주시에 촉구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뿐 아니라 민협·국회 등 관계기관마저도 일제히 개발 규모의 대폭축소나 계획의 현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주시는 부영 측 사업계획안을 부분적 수정·보완할 게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 또는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영산강환경정판과 전남도교육청 등이 법정 절차에 따른 나주시와의 협의에서 ▲용도지역 변경 최소화(아파트 건설 규모 대폭 축소) ▲2계절 이상 현지조사서 거친 건강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 제시 ▲중학교 및 고교 부지 사업

계획 변경 ▲공공체육시설 용지 반영 등을 주문했다. 이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인기관인 나주시에 향해 "자발적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준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부영골프장대책마련 민관협의회'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개발 방향의 원칙, 공공기여 규모 및 내용 등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영주택은 한국에너지공단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에 53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토지용도변경 등을 요청했다.

나주시는 현재 해당 사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대한 영산강환경정,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등) 변경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



1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도심에서 한 시민이 '나주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나주 부영CC 대책위 제공)

“지방세비율 40%·재정자주도 80% 실현”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행사 “지방 소멸 위기, 재정분권 시급”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재정 분권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 40%, 재정자주도 80%'를 실현하는 '지방재정 4080'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난달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의 존속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등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26.3% (2020년)인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65.7% (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지방세 비율은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자체수입비중(30.1%)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지방세 비율 40%를 확대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60%는 국세 이양과 부담금 전환으로, 나머지 40%는 지방세 자체 노력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4080 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20대 세부 과제가 제기됐다.

세부 과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정책 수단으로써 '감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 율결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국제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정비',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교세·감면 축소' 등도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광태 GGM 대표 사실상 유임... 지역사회 반발

3일 주주총회서 확정할 듯... 보은인사 논란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가 새 대표이사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박광태 현 대표의 유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용섭 광주지사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 경영체제를 유지하지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의 결과를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박 대표의 임기가 끝났지만 '캐스퍼'도 나왔으니 물러나려 했지만 GGM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광주주주와 주주총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주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열

린 노사민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GGM 대표 이사 선임 문제를 논의,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박 대표에게 경영을 더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1대 주주인 광주시(광주그린카진흥원)와 2대 주주인 현대차 역시 좋은 차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표의 유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할지, 임기 2년으로 공식 연임할지 여부는 오는 3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박 대표의 유임을 두고 초대 대표 취임 당시 강하게 반발해왔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역사회 반발도 예상된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황령으로 유죄까지 받았던 박광태 전 광주 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보은인사 의혹이 짙다"는 지적과 함께 비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자질 논란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물인 캐스퍼가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2년 임기 동안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 GGM을 안정시키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화합과 기회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도장터 '농산물관리 경진' 온라인유통부문 금상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농수축산물 언택트 판매시장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전남도는 1일 "남도장터가 지난해 매출액이 20억원으로 급상승한데 힘입어 2021년 농산물 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유통부문 금상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우수농산물관리 제도다. 올해 7회째인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주최로 GAP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려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GAP 농가와 유통업체, 학교를 대상으로 GAP 농산물 취급 노력, 성과, 발전 방안 등 항목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서류심사,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GAP 사업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했다.

남도장터는 지난 2018년 1억6000만원에 불과하던 GAP 농산물 매출액을 2020년 말 기준 20억원을 기록하는 등 12배 이상 급상승하며 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GAP 특별관 운영, 민간업체와 폭넓은 업무협약, 낮은 수수료율 등 GAP 농가와 상생하는 유통플랫폼 실적을 인정받아 금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이번 수상 성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도장터와 임접업체 간 상호협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GAP 농산물 생산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비대면 전시 새 지평

관람객 41만여명 '안심 비엔날레' 평가 속 수목 대중화·세계화

'오채찬란 모노크롬'을 주제로 열린 2021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온·오프라인 관람객 41만여명을 기록,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전시의 새 지평을 연 '안심 비엔날레'로서 2달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는 국내외 15개국 200여 작가가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채찬란' 한 작품을 선보이며 수목의 대중화, 브랜드화,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온·오프라인 누적 관람객 40만9763명을 기록하며 당초 관람객 목표 30만 명을 36%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감염 관람객이 한 명도 없어 '안심 비엔날레'로 치러졌다. 현장 관람객은 목포, 진도 주전시관에 4만 7961명, 광양, 광주 등 4개소 특별전에 2만3993명, 9개 시군 기념전에 3만2714명 등 총 10만4668명이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한 온라인 전시관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관람을 하지 못한 관람객 30만5095명이 방문해 전체 관람객 중 74%를 차지했다.

전시는 관람객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주전시관에 박대상, 이응노, 우국원 등 수목의 대가부터 신

진 작가 작품까지 망라했다. 또 도예가 유의정, 세계적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등 생활 속 수목을 보여준 작가와 이탈리아 안도넬라 레오니, 벨기에 룬 반덴 브룩, 중국 지저우 등 국내외 내로라하는 유명 작가의 대작을 전시했다.

또 수목 캘리그래피, 부채 그리기, 협동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과 수목작품과 생활용품 판매하는 아트마켓아트페어를 통해 남녀 노구나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생활 속 수목'을 구현해 대중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오채찬란'한 전시와 함께 각종 수목 체험, 아트마켓, 패션쇼·콘서트 등을 통해 수목이 대중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며 "수목비엔날레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화합과 기회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아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현영. 010-6837-4700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산산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성리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9,190㎡(2,780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준 건물 후면 산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택전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2,190㎡(2,780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매 7억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층)**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흥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투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식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6천원
(2) 담양읍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힐즈빌딩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2022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원(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사형)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학술발전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용,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11. 9.(화) 09:00 ~ 11. 24.(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일련) 후 원서 등출력
구비서류 제출(학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11. 9.(화) 09:00 ~ 11. 24.(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문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결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형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일시	2021. 12. 7.(화) 10:00 ~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된 장소(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12. 22.(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증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강명덕(371220-XXXXXX)
• 피후계자: 광주 남구 용문로115, 101동 608호 (방신동, 무등파크관현)

피상속인 방 강명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가정법원 2021노25748호) 신청하여 2021년 10월 19일 1년 인의의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채권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등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1월 2일
• 상속인: 1. 임상현(06715-XXXXXX) 신원 부부 공동 24만 원 34,18130 (부명동, 예로관현)
2. 임상현(09105-XXXXXX) 광주 남구 용문로 115, 101동 608호 (방신동, 무등파크관현)
3. 국도원(09025-XXXXXX) 광주 남구 대남로 85번길 3, 101동 1203호 (방암동, 방암명림로트먼트)
상속인 4 미상명(이름)으로 법정대리인 왕철우 부 국영, 모 양서영
5. 송민석(07814-XXXXXX) 광주 남구 용문로 115, 101동 608호 (방신동, 무등파크관현)
상속인 5 미상명(이름)으로 법정대리인 왕철우 부 국영, 모 국원경
• 신고기간: 2021. 11. 2 ~ 2022. 1. 12.
• 채권신고주소: 국영일 010-6634-3050

산행안내

11월14일(일)
▲광주지산악회 11월14일(일) 경북 청송 주왕산&절골, 주산지, 트레킹 산행, 염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 주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구독 신문 220-0551
문의 예향 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구	남구	서구	광산구
• 동광 266-1920	• 동광 673-6836	• 남광 673-6836	• 광천 382-5788	• 윤남 952-1687
• 문흥 266-1960	• 문흥 222-9054	• 북부 651-1833	• 상무 372-2352	• 월곡 959-1920
• 북광주 525-3761	• 동부 225-6001	• 봉선 673-6836	• 서광주 369-1625	• 천단 973-2900
• 신안 222-8171	• 중앙 222-9054	• 송월 675-6605	• 윤천 376-7153	• 하남 955-0451
• 양산 571-7658	• 우산 433-1503	• 송월 675-6605	• 지평 376-6511	• 광산 944-0444
• 오치 266-7601		• 송월 675-6605	• 풍암 603-0311	
• 용봉 433-1503		• 송월 675-6605	• 화정 369-1625	
• 우산 433-1503				